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수용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박동진¹, 김송미^{2*}

¹한영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 ²명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전임연구원

The Effects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nd Self-esteem on Peer Relationship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Dong-Jin Park¹, Song-Mi Kim^{2*}

¹Assistant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Hanyeong University

²Researcher, Institutional Review Board, Myongj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교우관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다문화 수용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8차년도 조사(2018)에 참여한 청소년 1,197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교우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이들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다문화 수용성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청소년의 교우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본 연구의 함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 청소년, 이중문화수용태도, 자아존중감, 교우관계, 다문화수용성, 조절된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nd peer relationship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o this end, the data of 1,197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the 8th year survey(2018)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tudy' survey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Second, it was found that while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eer relationship, self-esteem partially mediated these relationships. Third, it was found that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oderating the indirect effect that affects peer relationship through self-esteem as a mediating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 support plan was sought to positively form and maintain the peer relationship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subsequent studies of this study were presented.

Key Words : Multicultural Adolescent,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Self-esteem, Peer Relationship,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oderated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Song-Mi Kim(matumism0730@gmail.com)

Received May 31, 2021

Accepted August 20, 2021

Revised June 22, 2021

Published August 28, 2021

1. 서론

청소년은 교우관계를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를 이해하게 되고, 이는 자기를 이해하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자신에 대해 새롭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1].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교우관계는 청소년들의 인지 및 사회성 발달에 있어 중요한 경험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는 성인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대인관계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2,3].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교우관계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은 비다문화 청소년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4,5]. 다문화 청소년은 비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6], 친구와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다[7]. 다문화 청소년들은 교우관계에서 또래로부터 불편한 시선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고립되어 새로운 또래를 사귀는데 있어서도 서툴러 하고[8], 또래 주변을 맴도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9].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부정적인 교우관계에 대해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이질적이고 상이한 문화 속에 있으면서 이를 적절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말한다. Berry[10]의 문화적응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통합, 분리, 동화, 주변인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문화적응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 유형 중에서 이질적이고 상이한 문화를 적절하게 수용하는 통합 유형의 문화적응이 심리적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규명된 바 있다[11]. 우리나라의 다문화 청소년도 문화적응과정에서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 간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경험을 하는 경우에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기에서 영향력이 큰 교우관계에 긍정적이었다[12-14]. 박샤론[13]에서는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긍정적으로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친구지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자신을 가치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태도인 자아존중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15,16], 이러한 자아존중감이 이중문화 수용태도에 의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소영[17], 박지연[18], 송영명과 이현철[19], 김수지[20]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박동진과 이지연[21]에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자아존중감을 높게 가질수록 교우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이중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은 문화적응을 하는 데 긍정적이지만,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비다문화 청소년들이 다문화 청소년을 개방된 마음으로 수용하고, 한국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나가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다문화 수용성을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22]. 그러나 이는 비다문화 청소년들에게만 요구될 수 없는데,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려는 태도는 같은 사회에 공존하는 다문화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23]. 자신과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개방된 태도를 다문화 수용성이라 하는데[24],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태도라 할 수 있다[25]. 홍순혜와 이숙영[26]에서는 청소년의 새로운 문화에 대해 수용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클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김혜영[27]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이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다문화 수용성의 영향력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앞서 살펴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이와 함께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자아존중감에 대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이 다문화 수용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변인들은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이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에도 이들 변인들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교우관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다문화 수용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선행변인으로, 교우관계를 결과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조절변인으로 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대한 적절한 개입방안을 모색하고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교우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교우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가?,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다문화 수용성이 조절하는가?, 넷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교우관계의 관계에서 다문화 수용성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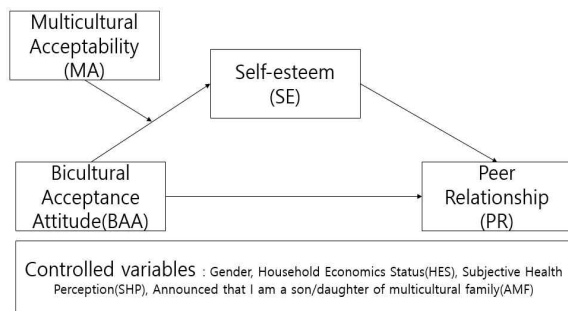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 청소년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tudy: MAPS)’ 8차년도 조사(2018)에 참여한 청소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패널조사에서 대상으로 설정한 다문화 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비롯하여, 외국인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모집분포에서 국제결혼가정자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 본 연구에서 사용한 8차년도 조사(2018)의 청소년 데이터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587명(49.0%), 여성 610명(51.0%), 연령은 16세 90명(7.5%), 17세 1,064명(88.9%), 18세 39명(3.3%), 19세 3명(0.3%), 20세 1명(0.1%), 거주지역은 서울 117명(9.8%), 경기지역 302명(25.2%), 충청/강원지역 240명(20.1%), 경상지역(280명(23.4%), 전라/제주지역 258명(21.6%), 부모 중 외국인 여부는 부 37명(3.1%), 모 1,154명(96.4%), 두 분 모두 외국인 4명(0.3%), 두 분 모두 한국인 2명(0.2%)인 것으로 나타났다.

2.2 측정도구

2.2.1 이중문화 수용태도

이중문화 수용태도(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BAA)를 측정하기 위하여 노충래·홍진주[29]의 척도를 수정한 총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한국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이다”, “나는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이다”, “나는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앞으로 계속 한국에 살고 싶다”, “나는 앞으로 외국인 부모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나는 한국의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나는 외국인 부모님 나라로 가서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나는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이며,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한국문화와 부모 국가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78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2.2 교우관계

교우관계(Peer Relationship: PR)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정남[30]과 황여정, 김경근[31]의 척도에서 발췌하고, 양계민 외[28]가 작성한 총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우리학교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우리학교 친구들은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준다”, “나는 우리학교 친구들과 방과 후에도 어울린다”, “우리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준다”이며,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긍정적임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2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2.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 SE)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32]의 총 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품성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이며,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다만,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7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2.4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bility: MA)을 측정하기 위하여 양계민, 정진경[33]을 수정·보완한 이경상 외[34]의 총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 친구가 될 수 있다”, “이성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으로 사귄다”, “커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이며,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것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9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2.5 통제변수

변인 간의 관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통제변수를 설정하였다. 성별(Gender)(남=1, 여=0), 가구의 경제적 수준(Household Economic Status: HES)(1=아주 어렵다, 2=어려운 편이다, 3=보통이다, 4=잘사는 편이다, 5=아주 잘산다), 주관적 건강인식(Subjective Health Perception: SHP)(1=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2=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3=건강한 편이다, 4=매우 건강하다), 다문화가족 자녀임을 직접 알렸는지 여부(Announced that I am a son/daughter of multicultural family: AMF)(1=예, 0=아니오)이다.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대상 자료를 SPSS 27.0과 Hayes[35]가 개발한 SPSS PROCESS macro 3.5.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SPSS 27.0을 활용하여 주요 변수별로 기술통계치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Preacher, Rucker & Hayes[3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매개모형, 조절모형, 조절된 매개모형을 순서대로 분석하였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교우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model 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문화 수용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model 7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왜도와 첨도의 점수를 살펴봄으로써 정규분포성을 확인하였는데, 본 연구의 측정변수의 왜도의 절대값이 $-0.62 \sim 0.07$ 으로 3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0.58 \sim 0.84$ 이 10을 초과하지 않아 각각 정규분포성의 조건을 충족시킨 것을 확인하였다[37].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s	N	M	S.D	Skewness	Kurtosis
BAA	1197	29.19	4.19	.07(.07)	.84(.14)
PR	1197	16.20	2.90	-.62(.07)	.72(.14)
SE	1197	30.64	5.83	.06(.07)	-.58(.14)
MA	1197	16.12	2.75	-.11(.07)	-.12(.14)

3.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중문화, 교우관계, 자아존중감, 다문화 수용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s	1	2	3	4
1. BAA	1			
2. PR	.37***	1		
3. SE	.36***	.49***	1	
4. MA	.38***	.32***	.30***	1

*** p<.001

3.3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교우관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교우관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에서 model 4를 사용하여 매개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독립변수인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종속변수인 교우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11, p < .001$). 둘째, 독립변수인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46, p < .001$). 셋째,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종속변수인 교우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9, p < .001$). 마지막으로,

Table 3.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nd peer relationship

variables	Outcome variable(Self-esteem)			
		B	S.E	t
Gender		.96	.35	2.73**
HES		-.16	.24	-.67
SHP		2.44	.30	8.20***
AMF		.84	.40	2.12*
BAA	a	.46	.04	10.63***
R-Squared=.21, F=47.24, p<.001				
variables	Outcome variable(Peer Relationship)			
		B	S.E	t
Gender		-.30	.16	-1.83
HES		-.02	.11	-.19
SHP		.23	.14	1.60
AMF		.67	.18	3.66***
BAA	c'	.11	.21	5.34***
SE	b	.19	.02	12.38***
R-Squared=.27, F=55.90, p<.001				
Mediating Variable	Validation of significance for indirect effects			
SE	effect	BOOT S.E	BOOT LLCI	COOT UCLI
	.09	.01	.06	.11

*** p<.001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종속변수인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종속변수인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지만 그 크기가 작아졌다($c'=.11, p < .001$).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10(a \times b = .46 \times .19)$ 인 것으로 나타났고, 부트스트래핑(bootstapping)을 통하여 매개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한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의 계수가 하한값 .06과 상한값 .11으로 신뢰구간 내에 0이 있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교우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자아존중감을 고려한 상태에서도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지속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은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교우관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3.4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다문화 수용성의 조절효과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다문화 수용성이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에서 model 1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평균중심화한 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다문화 수용성에 따라 이들 관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 = 41.48, p < .001$). 다문화 수용성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조절변수의 특정한 값(조절변수의 $\pm 1SD$)에서 단순회귀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한 결과[37], 모든 조건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variables	B	S.E	t	R-Squared	F
Gender	1.16	.34	3.37***	.25	41.48
HES	-.22	.23	-.93		
SHP	2.32	.29	7.94***		
AMF	.71	.39	1.84		
BAA(a)	.34	.05	7.40***		
MA(b)	.42	.07	6.10***		
a×b	.04	.02	2.76***		

*<.05, **<.01, *** p<.001

향이 조절변수인 다문화 수용성의 수준에 따라서 모든 조건에서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절효과에 의한 변화 형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다문화 수용성이 $\pm 1SD$ 값일 때 자아존중감의 값을 fig. 2에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으면서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경우 교우관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Table 5. Verification of the significance of simple regression lines according to the level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variables	Moderating effect	S.E	t	LLCI(b)	ULCI(b)	
MA	-1SD	.23	.67	3.36***	.10	.36
	Mean	.34	.05	7.41***	.25	.44
	+1SD	.46	.06	8.22***	.35	.57

*<.05, **<.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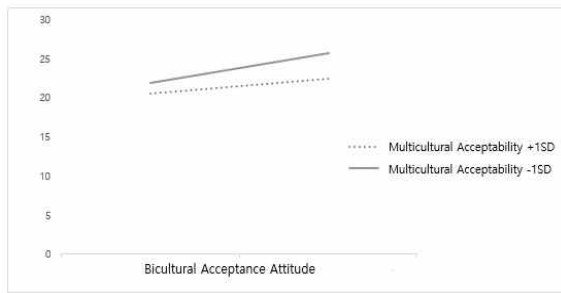


Fig. 2. Moder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Acceptance in relationship between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nd self-esteem

다문화 수용성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를 산출한 결과, 다문화 수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가 저하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다문화 수용성이 평균값과 $\pm 1SD$ (표준편차)에서 모두 신뢰구간 내에 0이 있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3.5 이중문화 수용태도, 교우관계,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다문화 수용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Preacher et al.[36]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다문화 수용성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ng effect)모형은 James & Brett[38]가 제안한

용어이며, 매개변수가 갖는 매개효과가 조절변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39]. 이를 살펴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에서 model 7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다문화 수용성은 이들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04, t=2.75, p<.01$), 자아존중감은 교우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9, t=12.38, p<.001$). 이를 볼 때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관계를 다문화 수용성이 조절함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다문화 수용성이 갖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평균값과 $\pm 1SD$ (표준편차) 수준에서 모두 조건부 값에 따라 나타나는 간접효과 크기를 살펴 보았다[40]. 분석결과, 다문화 수용성의 조절된 매개 지수는 .01이었으며, 평균값과 $\pm 1SD$ (표준편차) 수준에서 .00~.01로 모두 신뢰구간 내에 0이 있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다문화 수용성 수준의 평균-1SD의 간접효과는 .06, 평균의 간접효과는 .08, 평균+1SD의 간접효과는 .09로 자아존중감 수준이 증가할수록 간접효과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6.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nd Peer Relationship

variables	outcome variable(Self-esteem)				
	B	S.E	t	LLCI (b)	ULCI (b)
Gender	1.16	.34	3.37***	.48	1.84
HES	-.22	.23	-.93	-.67	.24
SHF	2.32	.29	7.94***	1.75	2.89
AMF	.71	.39	1.84	-.05	1.47
BAA(a1)	.34	.05	7.41***	.25	.44
MA(a2)	.42	.07	6.11***	.28	.55
BAA×MA(a3)	.04	.02	2.76**	.01	.07
F=41.46, p<.001, R-squared=.25					
variables	outcome variable(Peer Relationship)				
	B	S.E	t	LLCI (b)	ULCI (b)
Gender	-.30	.16	-1.83	-.62	.02
HES	-.02	.11	-.19	-.24	.19
SHF	.23	.14	1.59	-.05	.51
AMF	.67	.18	3.66***	.31	1.03
BAA(c')	.11	.02	5.34***	.07	.16
SE(b1)	.19	.02	.19***	.16	.22

F=55.90, p<.001, R-squared=.27				
mediating variable	validation of significance for indirect effect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SD	.04	.02	.01	.08
Mean	.07	.01	.04	.09
+1SD	.08	.01	.06	.11

*<.05, **<.01, ***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교우관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다문화 수용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기초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교우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이 이중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질수록 긍정적인 교우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긍정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난 Berry et al.[11], 신윤진·윤창영[12], 박샤론[13]에서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교우관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교우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도, 자아존중감을 통해 교우관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이 확인된 박소영[17], 박지연[18], 송영명과 이현철[19], 김수지[20]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이들 관계는 다문화 수용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순혜와 이숙영[26]와 김혜영[27]에서 다문화 수용성이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볼 때,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본 연구에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설사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다소 낮더라도 다문화 수용성이 높으면 자아존중감에 보다 강한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다문화 수용성의 중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수록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을 거쳐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독립변수인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종속변수인 교우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조절변수인 다문화 수용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 결과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교우관계에 있어 다문화 수용성의 영향력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문화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자신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개방된 태도를 지닌 것이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교우관계 증진 및 전반적인 심리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교우관계를 긍정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다문화 청소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중적인 문화경험을 긍정적이고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는 태도 및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요구된다.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이중문화 적응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긍정적인 성취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교류를 할 수 있는 또래관계 프로그램,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문화이해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등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교우관계 지원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문화 청소년 및 또래들 모두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을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타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잘못된 편견은 다문화 수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실제적인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조차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자아존중감도 낮고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경우가 있었다. 그러므로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다문화 교육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이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며, 교우관계 증진을 도

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교우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또래들의 동반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기는 또래부터의 수용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또래부터의 차별을 경험하는 것은 발달상에 매우 부정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우관계의 증진을 위한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학교, 학교사회복지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교우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또래집단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또래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또래상담 프로그램 등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교우관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다문화 수용성이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교우관계 간의 매개적인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가진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에 참여한 다문화 청소년이 응답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데이터는 개인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나, 표집된 대상 대다수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인 다문화 청소년들이라는 한계가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가 다문화 청소년 인구 분포에서 다수를 차지한다고 해도, 다문화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기에는 다소 제한된다. 후속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인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인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등등 다문화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들 배경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다면 본 연구의 한계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는 횡단적으로 살펴본 것인데 청소년의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발달에 따른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교우관계의 관계에서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비롯하여 다문화 수용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종단적으로 살펴본다. 이들 변인의 변화계절을 밝힌다면, 청소년의 발달에 따른 특성을 보다 반영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REFERENCES

- [1] J. Youniss. (1980).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A Sullivan-Piaget perspectiv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 W. W. Hartup. (1993), Adolescents and their friend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993(60), 3-22.
DOI : 10.1002/cd.23219936003
- [3] G. L. Bagwell, Newcomb, A. F., & W. M. Bukowski.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DOI : 10.1111/j.1467-8624.1998.tb06139.x
- [4] Y. S. Kim. & J. H. Woo. (2012).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improvement of Policy Supports for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Multi-Cultural Contents Studies*, 13, 69-103.
- [5] Y. H. Kim. & H. K. Kim. (2020).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7(9), 155-182.
DOI : 10.21509/KJYS.2020.09.27.9.155
- [6]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9). A Study on the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in 2018.
- [7] M. S. Park. & M. J. Lee. (2014). A Case Study on Causes of Conflict about Multicultural Adolescents Experience,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0(3), 149-174.
DOI : 10.24159/joec.2014.20.3.149
- [8] W. J. Seo. (2010). An Ethnographic Research on Live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Homes.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cheon.
- [9] S. M. Kim. & K. E. Chung (2013). A qualitative study on the stigma experience of multicultural youth, *Forum For Youth Culture*, 34, 27-49.
- [10] J. W. Berry.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3), 697-712.
DOI : 10.1016/j.ijintrel.2005.07.013
- [11] J. W. Berry., J. S. Phinney., D. L. Sam. & P. Vedde. (2006). Immigrant Youth: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5(3), 303-332.
DOI : 10.1111/j.1464-0597.2006.00256.x
- [12] Y. J. Shin. & C. Y. Youn. (2010). Bicultural adjustment, peer relationship and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4(2), 1-14.
- [13] S. R. Park. (2010).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School Adjustment of the Children of Families with Married Female Immigrants. Master's Thesis, Konkuk

- University, Seoul.
- [14] S. Y. Lee. (2018). A study of longitudinal changes and relevant factor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ttitudes amongst multiethnic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9(1), 179-208.
DOI : 10.14816/sky.2018.29.1.179
- [15] J. K. Lee. & H. J. Lee. (2019). The Influence of Bilingual and Bicultural Factors on Self-esteem of Multicultural Youth, *Journal of Social Science*, 30(4), 81-100.
DOI : 10.16881/jss.2019.10.30.4.81
- [16] H. G. Sohn. & E. H. Kim. (2021).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Achievement Motivation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Using Serial Mediator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ttitudes and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8(4), 219-245.
DOI : 10.21509/KJYS.2021.04.28.4.219
- [17] S. Y. Park. (2007). The Relational Structure among Variables Affecting Juveniles' Friendship Quality. Master's Thesis, Kyungpook University, Daegu.
- [18] J. Y. Park. (2008).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Self Esteem up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9] Y. M. Song. & H. C. Lee. (2011). The Determinants of Friendship Among Adolescent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8(1), 91-112. DOI : 10.24211/tjkte.2011.28.1.91
- [20] S. J. Kim. (2020). Longitudinal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and Friendship in Early Adolescence: Verification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21] D. J. Park. & J. Y. Lee. (2019). An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and Peer Relationship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6(3), 73-92.
- [22] S. H. Baek. & H. W. Chung. (2017).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the changing community spirit as determined by means of growth mixture modeling, *Studies on Korean Youth*, 28(1), 151-182.
DOI : 10.14816/sky.2017.28.1.151
- [23] Y. J. Jang. & N. M. Shin. (2015). An ethnography study on the experiences and characteristics of peer relationships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8(4), 57-76.
DOI : 10.14328/MES.2015.12.31.57
- [24] J. Y. Choi. & J. C. Kim. (2015). Exploration of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that influence multicultural acceptance for elementar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2), 389-411.
- [25] Y. H. Kim. (2019).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Friendships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Adolescents Adapting the Partial Restricted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4), 961-983.
DOI : 10.15753/aje.2019.12.20.4.961
- [26] S. H. Homg & S. Y. Lee. (2008). A Study on the Acculturation and Psycho-social Adaptation of Saetom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6), 121-144.
- [27] H. Y. Kim. (2020). A Study on the effects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on Achievement Motivation and Academic Adaptation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Welfare & Cultural Diversity Studies*, 12(1), 87-108.
- [28] K. M. Yang., J. G. Hwang., B. R. Youn. & Y. M. Jeong. (2018). Multicultural adolescents longitudinal study 2018, Sejong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29] C. R. Nho. & J. J. Hong. (2006). Adaptation of migrant workers' children to Korean society : About Adaptation of Mongolian migrant worker's children in Seoul, Gyeonggi A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2, 127-160.
- [30] J. N. Kim. (201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chool Adjustment Scale for Middle School Student and High School Student-Short Form,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5(3), 497-517.
- [31] Y. J. Hwang. & K. K. Kim. (2006). Determinants of student's satisfaction with general high school,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6(2), 181-203.
- [32]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33] K. M. Yang. & J. K. Chung. (2008). A study on the promo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youth for social integration . Seoul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34] K. S. Lee., H. J. Baek., J. W. Lee. & J. Y. Kim. (2011). The 2011 Annual Report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Seoul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35]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Y: The Guilford Press.
- [36] K. J. Preacher., D. D. Rucker. & A. F. Hayes.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DOI : 10.1080/00273170701341316
- [37] R. B. Kline.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4th Ed.)*, NY: The Guilford Press.
- [38] L. R. James. & J. M. Brett. (1984). Mediators, Moderators, and Tests for Medi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9, 307-321.

DOI : 10.1037/0021-9010.69.2.307

- [39] S. H. Jung. & D. G. Seo. (2016). Assessing Mediated Moder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Guidelines and Empirical Illustrat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5(1), 257-282.

DOI : 10.22257/kjp.2016.03.35.1.257

- [40] P. E. Shrout.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DOI : 10.1037/1082-989X.7.4.422

박 동 진(Dong-Jin Park)

[정회원]



- 2020년 3월 ~ 현재 : 한영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청소년복지
- E-Mail : wookana@hanmail.net

김 송 미(Song-Mi Kim)

[정회원]



- 2020년 3월 : 도시샤(同志社)대학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21년 7월 ~ 현재 : 명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전임연구원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다문화사회복지
- E-Mail : matumism0730@gmail.com